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지원 강화

일본은 DDA나 FTA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종전의 수비자세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 일본산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수출확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에 의한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 등에 의해 일본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이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출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어서 농림수산성도 2004년도에 예산과 조직 양면에서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촉진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 지자체에 의한 수출촉진협의회 설치

2003년 5월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에서는 전국 23개현이 참가한 ‘농림수산물 일본브랜드 수출촉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읍서버로서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그리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도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규약과 국가에 대한 요망사항을 결정하고, 각 도도부현의 수출촉진을 위한 대응과 해외에서의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국제박람회 참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규약은 우선 설치목적은 “각 도도부현이 연대하거나 공동으로 수출에

관한 장벽철폐 활동과 새로운 판로확장 활동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관세나 검역, 위생조건 등 제도개선 요망, 해외박람회, 상담회, 기타 일본 농림수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10월의 미야자키현(宮崎縣)에서 열린 2차 협의회에서는 목재수출을 협의하는 장으로서 목재분과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목재분과에는 23개현이 참가하는 등 목재수출에 높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협의회 회원 수는 신규로 4개현이 참가함으로써 전국 47개현 중에서 27개현으로 늘어났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국가의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을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 JETRO 등에 요망하는 한편 해외식품박람회에 공동으로 참석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2004년도 수출지원예산 증액

한편, 농림수산성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에 약 8억 400만엔을 확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수출가능지역 조사나 홍보활동 등에 지원하고, 또 국제부 무역관세과에 ‘수출촉진실’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우선, 예산면에서는 수출확대지원에 3억 5,000만엔을 확보, 이 중에서 국산농림수산물 해외보급사업(2억 800만엔)을 신규로 도입, 생산자가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의향이 있는 생산자의 해외 시장개척 파견, 해외 세미나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수출업자와 생산자가 프로젝트를 결성한 상품별 수출사례 구축 등에 지원하고 있다.

표 1 일본의 2004년도 농산물수출증합대책비 내역

사업	예산	사업개요
(1) 농림수산물·식품 수출기회 확대 ○ 국산농산물 해외보급사업 ○ 일본산 브랜드 수출촉진사업	3억 5,000만엔	○ 외국무역제도 조사, 해외시장개척 단 파견, 해외 홍보, 상품별 수출 모델구축 등을 통한 생산자가 수출하기 쉬운 환경정비 ○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본산 브랜드의 생산자단체 등이 행하는 수출촉진활동(전시회, 상담회, 시험수출, 메뉴제안, 해외구매자 일본초청, 상품개발등)을 지원
(2) 해외에서의 쌀 소비확대 운동전개 ○ 수출촉진형 쌀소비확대	1억 400만엔	○ 팔리는 쌀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일본쌀 수출가능성 조사, 수출처별 일본쌀 소개 등 판매촉진활동을 지원
(3) 국내외 수요에 대응한 생산체제 강화 ○ 브랜드일본 농산물판로확대사업	3억 5,000만엔	○ 해외를 포함한 판매처 정보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저코스트화를 위한 집출하시설, 신선도유지시설등 공동이용시설 도입을 지원
합계	8억 400만엔	

자료 : 농림수산성

또,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전시회, 상담회, 시험수출 등 수출촉진활동을 지원하는 ‘일본산 브랜드 수출촉진사업’도 신설하여,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소요경비의 50%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한 외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4,100만엔을 확보하여 수출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 밖에도 팔리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일본쌀 수출가능성 조사, 수출처별 일본쌀 소개 등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지원 조사나 판매촉진활동에도 1억 400만엔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해외를 포함한 판매처 정보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적절히 대응하는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저코스트화를 위한 집출하시설, 신선도 유지시설 등과 같은 공동이용시설 도입을 지원하는 ‘브랜드일본 농산물판로확대사업’에 3억 5,000만엔을 확보해두고 있다.

한편, 조직면에서는 2004년 4월 농림수산업 대신관방 국제부 무역관세과에 ‘수출촉진실’을 설치, 경제산업성, JETRO, 그리고 지자체 등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수출지원에 다양하게 지원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일본의 지자체는 수출유망 품목으로 고급품인 쌀과 쇠고기를 비롯하여 과일, 채소, 화훼, 차, 어패류, 목재, 그리고 유제품, 각종 가공식품 등과 같은 소량 다종 상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쌀은 대만, 홍콩, 미국 등에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과와 배는 대만, 홍콩,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딸기는 홍콩, 녹차는 미국, 연어는 중국, 가리비는 유럽, 모란(牡丹)은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목재는 08년 북경 올림픽과 상해 박람회 등을 앞두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